**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기도의 첫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며,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계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 기도의 첫번째 동기는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님의기도의 두번째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커져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열망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나라의 존재를 믿지도 열망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심어린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체코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올림픽이 한창일 때면 조국 대한민국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한국 선수가 잘 하면 나도 으쓱하고, 잘 못 하면 나도 속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듯,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사랑하는 만큼,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 응원하고 또한 협력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어느 한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부여받은 그 국적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것이 별반 없어도 내가 그 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미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소트트랙 선수가 있지요? 한국에서 러시아로 귀화하여 금메달 세개와 동메달 한개를 따낸 안현수 선수, 러시아 이름으로 빅토르 안 선수입니다. 경기후 인터뷰에서 그는 러시아 귀화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좋아하는 소트트랙을 마음 편히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한국 빙상계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국에서 계속할 수 없었고, 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국적을 바꾸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가 일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빙판에 입을 맞춘 후 러시아 국기를 들고 트랙을 도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한국 국민들은 매우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새삼 질문하게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국적은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듯 합니다. 내가 지금 속한 나라가 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계속 그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와닿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만약 이 특권과 은혜에 진정 감사한다면, 어찌 이후 내 삶의 전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을 향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반응은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너의 행복과 무관하게 너는 무조건 네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 보다 필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은지,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정치체제 가운데 그나마 제일 낫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다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 민주국가의 헌법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개성과 능력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국가가 모두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사태는 이 서로 상충하는 생각들이 심각하게 충돌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에 민주주의 체제를 특징짓는 중요한 원칙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수결입니다. 즉 민주국가는 다수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소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주국가의 위정자라면 분명 그들에 대한 긍휼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의 긍휼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실수를 지우기 위해 사용되는 지우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체제 속에서 인생의 주된 부분은 경쟁입니다. 긍휼이 고려되는 그나마 다행스런 경우에도, 그것은 단지 경쟁의 피치못할 일부로 존재할 따름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부여되는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주권의 정치 시스템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쉬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포악한 왕들의 이야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들의 이야기를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역사상 존재했던 여타 왕정국가나 독재국가와 다를 뿐더러, 이 세상의 나름 괜찮은 민주국가들보다도 우월합니다.

우선, 그 나라의 주권자와 관련하여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하나님은 그 백성 전체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까지 그 죄인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길을 떠나는 목자의 모습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희생적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세상 어느 통치자 혹은 국민 다수가 이처럼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회의 죄인들, 실패자와 불행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인식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대의 통치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따라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구원의 상징임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 통치방식과 관련하여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시공을 초월하여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백성들을 그루핑하여 일대 다수로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공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기에,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대 일로 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통치자가 그 마음을 다 헤아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능히 헤아릴 수 있으시기에, 각자에게 획일적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기계적이 아닌 인격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드러내보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마음과 마음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독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위로자요 조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그 통치의 유익과 관련하여 볼 때, 하나님의 통치는 그 나라 백성들을 가치있는 인생과 역설적인 행복에로 초대합니다. 나라마다 통치이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핵심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란 인간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그 기본적인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평범한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구현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이 바른 관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설정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 ‘우라노스’, 즉 땅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늘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을 좇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때에만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눈앞의 것 너머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좇는 삶은 역설적 행복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시민들을 향해 여덟 가지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기에 천국에 속할 수 있고, 애통하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하기에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있기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하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도 감수하기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이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예수님을 좇아 살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유익에 동의한다면,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받아 실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으로 인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을 좇아 살면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전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꼬빌리시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도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